

낙농육우농가 권익위해 더욱 노력해 주기를...

김남용
협회고문



월간 낙농육우는 창간 25주년을 맞는 이래로 그동안 낙농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함으로써 전국 낙농가들에게 큰 힘이 되었으리라 봅니다. 월간 낙농육우는 낙농육우농가의 권익대변과 낙농육우산업의 안정화를 위한 협회 설립목적 하에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자들이 월간 낙농육우를 비롯, 협회가 하는 일이 무엇이나고 반문하면 본인은 항상 말합니다. 만약 이것들이 없었고 가정을 하여보라고 말합니다. 특히 협회가 항상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을 뿐입니다.

회고해보면 협회는 특히 원유대 정상화에 특히 노력하였습니다. 협회가 창립하게 된 동기도 원유대 정상화였습니다. 원유대 정상화를 위해 동분서주 하였는데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힘이 아쉬워 협회를 설립하고 협회 하에 많은 낙농가들이 하나가 되어 원유대 정상화를 이뤄냈던 것입니다. 그후 원유대 정상화 때마다 협회가 앞장서서 정상화를 이뤄 내곤 하였던 것입니다. 현재 낙농가들이 받는 원유대도 협회가 이룩해 낸 것을 많은 낙농가들이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우리나라의 낙농산업은 위기라고 합니다. 우유소비는 정체에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낙농선진국들은 우유를 비롯한 많은 유제품을 우리나라에 수출하고 있으면서 더 많은 양을 수출하기 위해 압력을 가해 오고 있고 우리나라 자체에서도 우리나라는 무역으로 지탱하고 있는 수출국이라는 이유를 앞세워 무작정 무역자유화를 위한 개방협상을 시도하고 있으니 국내 낙농여건은 나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우유소비는 신장되지 못하고 계속 뒷걸음질을 하고 있고 외국의 싼 유제품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수입유제품에 대한 제동은 커녕 오히려 촉진을 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낙농세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현 국내 낙농산업을 위기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낙농가들을 보면 위기의식을 느낄 수 없습니다. 어느 경제학자는 국민들이 정부가 위기라고 느낄때 대책이 있고 그 대책에 의해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낙농위기를 모두가 공감하고 대책을 세워 현 낙농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낙농가들은 마음을 비우고 협회 중심으로 뭉쳐야 합니다.

둘, 셋으로 갈라진 힘은 큰 힘이 될 수 없습니다만 낙농가의 단합된 힘은 큰 힘이 됩니다. 현재 자조금 제도는 임의에서 의무로 전환되었지만 낙농가들은 자조금이 어느 누구도 아닌 본인을 위함임을 알고 기쁜마음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우유소비의 둔화는 낙농가에게 직·간접적으로 악영향을 줍니다. 우유를 주식으로 하는 낙농선진국에서도 자조금사업 등을 통해 우유소비신장을 이뤄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농축산물 생산자들이 앞다투어 자조금사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쌀 자조금마저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고 보면 우리 낙농의 자조금제도는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낙농육우산업은 계속 발전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은 더 위생적

이면서 안전한 축산물의 소비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낙농육우농가들은 저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낙농육우산업이 단시일 내에 발전을 이룩해 낸 것은 낙농육우 농가의 노력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낙농육우농가들을 결집하게 한 협회가 있었습니다. 협회를 중심으로 결집한 낙농육우가들의 힘이라면 앞으로도 낙농육우 농가 개개인의 권익도 보호될 수 있고 우리의 낙농육우산업은 계속 발전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이 우유와 육우고기를 찾는 한 우리나라 낙농육우산업의 발전을 위한 협회와, 월간낙농육우의 기여는 계속 이뤄져야 합니다. 재차 월간 낙농육우의 창간 25주년을 축하합니다.

낙농육우농가의 단결과 지혜, 『월간 낙농육우』 통해 모아나가기를...

서정의
한농연중앙연합회장



푸르른 녹음이 질게 드리우는 신록의 계절 5월, 창취한 여름을 향해 숨 가쁘게 달려가는 계절의 변화와 더불어 우리 낙농육우농가들의 일손도 분주함을 더해 갑니다.

먼저, 낙농육우정책의 핵심적인 문제와 농민

적 시각을 대변하며 정론직필의 외길을 꾸준히 걸어오신 월간 낙농육우의 25주년 맛이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언론들이 범하기 쉬운 현실타협적인 모습과 정체로 인한 구